

**동우컴퓨터**

생각의 자유

얼마 전에 나와 손자 녀석들이 집의 창틀을 칠한 적이 있다. 그래서 페인트 색을 고르는데, 손자 중 미술을 전공한 녀석이 파스텔 색조를 주장한다. 그래야 집에 품격이 있단나? 그러나 나는 원색이 좋다고 말했다. 빨강, 파랑, 노랑…. 내 말에 손자는 집이 유치원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색깔을 억압하니? 색깔을 해방시켜 자기 색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지. 요즘 은은한 색이라 하며 색을 희석하는데 할아버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본연의 색이 드러나야지.”

나는 요즘 잠언을 쓰고 있다. 그것을 빨간 판에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간혹 이것을 받아본 사람 중에 '왜 빨간색 판에다 글씨를 쓰느냐'는 사람이 있다. 빨간색은 우리 교단의 색깔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색이요, 열정을 나타내는 본래의 색이기에 나는 빨간색을 선호한다.

생각에도 자유를 줘야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는 좋는데 왜 창의성이 결여되었을까? 이는 생각을 짜인 틀 속에 구겨 넣기 때문이고, 아이들의 생각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교복을 입듯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만의 색깔, 그것은 개성이다. 개성이란 내 생각과 내 삶의 색에 자유를 주었을 때 생겨나며, 이것은 유행이나 관념 따위로 희석되지 않는 독창성을 말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등, 다른 교단과 차별화를 두는 것이 우리 교단의 독창성이다.

고정관념, 그것은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다. 규범이나 규칙, 당위성이나 전통을 깨고 생각이 자유로워질 때 무한한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들이 이 자유로운 생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던가.

물을 가둬두면 썩는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때 그것이 강에 이르고, 더 넓은 바다에 이르는 것이듯, 생각에 자유를 부여할 때 개인의 삶이, 나아가 사회가 넓고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생각에 자유를 줘라.

지난 화요일 JCA카데미 후, 목사님께서
는 급히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들을 부르
셨다. 아카데미가 시작되는데도 강당에
는 약 3분의 1 정도의 인원밖에 오지 않
았던 것이다. 이는 서로 일을 미루며 안
일한 대응으로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사전에 각 부서의 참석 인원을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에 만전
을 기했어야 마땅한 일을 게을리 한 담당
교역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다.

도 차니까 하며 서로 미루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내가 주일에도 말하
지 않더냐.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처
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에 서서 메시지도 증거할 수 없다. 그
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 준
비하는 거다.

아르헨티나 최대교회 목사가 자신의 교인이 2만 명이니 이 정도 체육관 채우는

서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 그들은 이 방송화면만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촬영도 잘해야겠지만, 누가 어디서 보든지 화면이 보기 좋도록 이 장소를 잘 준비해야 한다. 내가 예배 때마다 행정목사에게, 방송담당 목사에게, 음향 담당자에게,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하며 독려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제 너희 젊은 목사들이 이 교단을 책임지는 자세로 이끌어가야 한다. 언제까

머리가 부지런하면
손발도 부지런하다

붕우 이초석 목사

지도자의 덕목이다

“나는 오늘 아카데미를 위해서 5시간을 기도했다. 식사를 대접하며 교회 헌금을 직접 전해드리겠다는 성도의 전화에 나는 저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는 ‘잠깐이면 되는데, 그리고 공예배도 아니고 아카데미인데’ 하는 거다. 나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전에 구역예배를 인도하든, 대예배를 인도하든 동일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에도 충성한다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내 철학이라 하지 않던가? 아카데미에 나오는 젊은이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도 이 나라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거다. 나는 항상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한다. 돈 준다는데도 마다한다면 내 마음을 알 거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한 것이냐? 작은 장소에 다른 부서 인원만 와

건 일도 아니란 식으로 말하더니 첫날 바
닥조차 차지 않았다. 내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입을 벌린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다. 절대 공짜는 없다.

목회 초창기 성남에 있는 감리교회로 부흥사경회를 갔었다. 그때는 새벽, 낮, 밤, 이렇게 하루 세 번 부흥회를 인도해야 했다. 가보니 10명이 나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토요일 되니 2명이 늘어 12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는 줄 아니? 나는 그분이 가라는 곳이면 오직 아멘하고 달려가서 죽도록 충성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십만 명이든 나는 동일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아카데미가 작은 장소에서, 더구나 코로나로 적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 참석한 인원보다 유튜브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에

지 내가 함께 하겠니. 4부 예배를 열어서 교단의 젊은 목사들을 단에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제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단의 미래는 내가 짊어진다는 자세로 매사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주입되기를 바란다. 오늘 돌아가거든 일기에 써라. 오늘의 교훈이 너희 일생에 지침만 된다면 너희 목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사랑한다!”

목사님은 교육관을 떠나시며 승강기 앞에서 재차 말씀하셨다. “오늘 각자 깨달은 바를 적어서 나에게 보내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이 말씀처럼 목사님의 가르침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으리라.

한은택 목사

주말예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07:10~16)

나는 이렇게 기도로 살아왔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봤습니까? 당신은 엘리야처럼 가랑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 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습니까(왕상18:42)? 하갈처럼 방상대곡하며 기도 해봤습니까(창21:16)?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해봤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사무치게 울면서 기도해봤습니까(사38:14)?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해봤습니까(시6:6)? 더욱이 예수님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능력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봤습니까(히5:7)?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을 열었고, 하갈은 눈이 밝아져 옆에 평평 솟는 샘물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아들인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을 감동시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부림절을 맞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찌 되었나요?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기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으면서도 37년을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철산리에서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단에서 학잠을 자며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대형교회의 일꾼들이 대거 우리 교회로 물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자 여기저기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때도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제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해외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셨습니다. 안수한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올림픽 공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예배처소가 없을 때,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처했을 때, 온갖 매스컴들이 저를 비하하고 저를 핍박할 때, 가족들이 다 떠났을 때, 기도원이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사지가 마비되고 눈이 실명 위험에 처했을 때, 간이 90% 굳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저는 누구와 의논하지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간절히, 방성

대곡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눈물의 기도예 응답하셨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언젠가 해외선교팀원인 한은택 목사가 교회 신문 칼럼란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나가보면 목사님은 일찍 주무시지도 않지만,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요, 새벽같이 이른 시간에도 그 기도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녁 집회를 앞두고도 또 기도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집회 때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의 힘임을 알 수 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처럼 깨끗하다. 침대

시트 조차 건지 않고 주무시는지 침대와 침대 밑에 깔린 겹쳐진 타월에 선명하게 찍힌 두 무릎 자국이 보일 뿐이다. 목사님의 오늘은 바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입니다. 저는 집회를 앞두고는 하루 7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의 야외집회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올 때면 밤이 새도록, 집회 나가기 전까지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몽골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앞두고 평온하던 울란바토르의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거센 돌풍이 일어나 사정없이 이곳저곳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가랑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집회 시간이 다 되어 메인스타디움을 향해 갈 때까지도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회 장소에 도착할 때쯤에 돌풍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시커멓던 하

늘이 뿔려 파아란 하늘을 드러내며 일곱 색깔 무지개가 드높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카니발 목사가 개최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집회 첫날, 커다란 체육관에는 단지 몇 백명만 바닥에 앉아있었습니다. 장장 사흘에 걸쳐 지구 반대편까지 갔건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통역관인 이현숙 선교사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며 함께 부르짖어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날 그 체육관이 꽉 찼습니다. 정 도로 사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물려왔습니다. 하나님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는 말씀이 이뤄진 것입니다. 라트비아 리가 집회, 멕시코 메리다 집회, 가나 오부아시 집회, 인도 뉴델리 집회... 이 모두 기도로 일군 작품들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기에 가능한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바다가 벽을 이루게 하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게 하였고, 기도하니 손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기도하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기도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옷에 물 한 방울 묻혔습니까? 아니요, 오직 기도하니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3년 6개월 닫힌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한 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으셨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사 소원하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의사가 손을 뻗 병일지라도 나음을 입을 것이고, 당신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죽을죄라도 용서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했으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가 끝난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늘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존하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만능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만능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여전히 문을 못 연다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의 기도 양이 많이 줄어든 듯합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까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우리가 망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난한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하나님)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107:19~20), 기도하면 고통과 저주에서, 병과 가난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기 싫은 자의 변명입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밀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꽃길과 돌썩발길

지난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누가 꽃길만 걸었는가?’라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우리 주님, 목사님, 누가 꽃길만 걸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썩발길, 때로는 사막을 걷고 눈 덮인 산야를 걷게 하신다. 우리는 늘 꽃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가능하면 편안한 삶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암 4기 진단을 받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었다며, “목사님, 저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왔나요?”라고 하신다. 소식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아리다. “집사님,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어머니 수술 불능인 암 판정 받으셨을 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 집에 경사 님어오,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요.’ 하시던 말씀 생각나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경사가 나서 깨끗이 치료 받으셨고, 그 일로 어머니 신앙이 확고해지셨고, 10여 년을 더 사시다 작년에 95세로 소천하신 일 들으셨죠? 힘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조금 위토가 되었는지 “알겠어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주세요.” 한다.

나는 목회 초년생 때 기도하다 이상을 본

일이 있는데, 아주 넓은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한쪽 구석에 남루한 집 한 채가 있고 작은 대문이 달려 있었다. 내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넓은 공간에 벚꽃 같은 꽃이 길가에 만발하였고, 바닥은 붉은색 카펫 같은 것이 깔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기쁜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놀란 눈으로 끝까지 가보니 끝은 막혀있었고, 되돌아 출입한 대문에 가까이 와보니 우측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바닥은 자갈길이었다. 한 사람, 혹은 겨우 두 사람 정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이었고, 길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멀리 하늘 위에서 빛난 별 한 개가 나의 길을 인도해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는 하나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한다.’ 하셨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셨다.

우리 목사님은 평안하게 살기를 포기하셨다 하셨다. 누가 꽃길만 걸었는가. 하나님은 꽃길뿐 아니라 가시밭길, 돌썩발길... 모든 발길을 다 만드셨다.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9).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책장을 정리하다 책들 사이에 살짝 빠져 나와 있는 일기장을 발견했다. ‘1년만 써보지 않겠나?’는 권유로 시작된 일기 쓰기는 처음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몇 마디 적거나 그림일기처럼 일과를 적는 게 전부였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기를 쓰다 보니 점점 글 쓰는 게 늘었고, 점점 상세하게 적게 되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에 나 자신에게 솔직히 그날의 모든 생각과 감정 또한 적게 되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마지막은 감사와 회개 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 그때 적었던 기도문이 며칠 뒤 응답되거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일기를 쓰기 때문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개에게 은혜를 입은 기록을 통하여 은혜를 갚았던 것처럼,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법, 그것을 적어놓아야 잊지 않는다. 좋은 기억력보다 흐린 잉크가 낫다고 하니까.

태초부터 영원토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해놓은 성경을 사모하며, 받은 은혜를 매일 적어 기억하고 간직하자.

일기는 나의 영적 성장과정 기록이며, 반성기록지이고, 훌륭한 인생 자습서다.

이은성



:: 낮은 올타리 ::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느냐가 관건이다.

나에게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지도하는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잔뜩 화난 얼굴로 회사의 대응 태도에 관한 불만을 쏟아내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시간 가까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고객의 불만 내용을 다 듣고, 회사에서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나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기도하며 일하던 중,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홀로 답답해하는 것을 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다시 만났을 때 아이의 엄마는 반가운 얼굴로 곧바로 사과부터 했다. 이유인즉슨, 그날 내가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계속 불편하더라. 이유를 찾던 중, 잘못이 없는 나에게 크게 화를 낸 것이 생각났고 이후로 나에게 사과하려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후 그분은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끝까지 충성 고객으로 남았고, 회사에서도 나

를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해주었다. 만일 그때 내가 그 고객과 문제를 수수방관한 회사에 맞서 다짜고짜 항의부터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작은 사건이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불평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목도한 귀한 경험이었다.

성경에서 요셉, 다니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 흑암과 같은 깊은 곤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해명 변명하거나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세우실 때까지 자신의 일에 묵묵히 성실했고, 인간의 꾀나 방법을 배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렸다.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쉽고 빠른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진리이며, 인생의 행로 법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국진 사모

보상심리를 버려라

‘보상심리’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쓰이는 ‘보상’을 영어로 ‘reward’라고 하는데, 성과금이나 상(賞)의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이처럼 보상심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칭찬받을만한 행동을 했을 때 ‘상’ 혹은 ‘대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학부 안에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팀원들에게 마음을 쓰면 저도 모르게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팀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나의 팀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팀원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저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나 사랑이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오래 참고 계속 사랑하는 것, 아무도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보상심리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일에 바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길 때도, 예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마음이 강박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손 내미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자.’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억울하고 마음이 상할 때, 상대방을 향한 나의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할 때, 그때가 정말 나의 사랑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장수정

:: 올림 있는 삶 ::

:: 빛이 되리라 ::

천국 가기까지

지난 5월 언니가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했다. 상장간막동맥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콧줄(비위관)을 통해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분을 공급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가 콧줄을 손으로 빼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과 발을 침대 끝에 묶었다. 콧줄을 하면 침 삼킬 때 코와 목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데, 언니는 가래까지 생겨 그 통증으로 인해 24시간 중 5분도 잠들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온몸의 기력이 쇠하여 가는 게 역력했다. 강력한 영양제가 투여되고 있었지만, 언니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져 나를 못 알아보거나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신이 돌아오면 결박된 손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역장이 무너져 내렸고 오열하며 언니에게 따라서 말하라고 했다. “예수님, 저 고통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주세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를 후 새벽 4시경, 언니는 기어코 묶인 손을 푼 후 콧줄을 빼버리고 말았다. 두 명의 간호사가 언니를 결박하고 표정 없는 의사는 연속 4번 콧줄을 넣었다 뺐다 반복했지만 실패했다.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치는 모습에 “이러다 사람 죽겠어요. 낮에 꺼도 되는데 자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이예요.”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의사는 ‘두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낮에 끼우겠다.’ 했고, 그 두 번째에 언니의 심장은 정지되었다. 기나긴 심폐소생술이 성공되어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었으나 언니는 의식도 없었고 갈비뼈도 손상되었다.

중환자실 면회는 거부되었고,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여전히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간

호사의 답변에 이유를 물으니 의식은 없지만 통증이 원인이라고 한다. 언니의 영혼이 고통 받고 있음에 가슴이 미어졌고 큰 결단을 해야 했다.

임종하기 전날 주일 새벽에 꿈을 꾸었다. 언니가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화장실 간 다기에 딸에게 부축해드리라 한 후 나는 언니의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나 맛있게 끓여졌다. 좋은 꿈 같다.

나는 교회 도착하자마자 제비같이, 학같이 목 놓아 슬피 울며 기도했다. 많은 눈물이 마스크를 가득 적셨다. 평안이 물려왔다. 다음날 오빠, 동생과 함께 연명치료 중단에 사인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했다.

지치고 피폐한 모습의 언니는 나를 알아보았고,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언니를 지명하여 직접 집사 직분을 주셨던 상화평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언니의 컷전에 갖다 대었다. 조용한 병실 가득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다. 언니는 입을 크게 벌려 ‘아멘’을 두 번이나 했다. 나는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초점을 잃은 언니에게서 주렁주렁 매달려있던 줄들이 분리되었고, 2시간 후 언니는 소천 하셨다. 발인 전, 입관을 도우시는 분이 ‘대부분 사망 시 고통으로 인해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는데 언니는 너무나 부드러워 고통 없이 천국 가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언니의 손 마디마디를 만져 보았는데 실제 살아있는 듯 부드러웠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과정을 알고 있던 오빠,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고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며칠 후 진료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심정지 원인이 콧줄 삽입하다 발생한 의료과실이 아닌 선천적 지체장애 호흡부전이라고 기록되어있었다. 분개한 나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절차를 열람하였고, 1인 시위를 통해 그 의사의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실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꿨다. 당시 의사는 당황하며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가래가 기도로 넘어가 생긴 심정지라며 변명했고,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고 무작정 콧줄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나는 살인행위라며 반박했지만, 체념한 후 ‘천국 가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했던 일들을 녹음했었다. 그 마지막 말이 발목을 잡았다. 그가 불신자라면 나의 이 말이 씨뿌리는 역할을 한 것이고, 믿는 자라면 크게 회개해야 할 그의 몫이라고 받아들였다.

‘엄마가 이모 십일조 내드렸고, 이모는 죄도 짓지 않아 천국에서 부자로 살 것’이라며 딸이 위로해준다. 맞다. 나는 수시로 불평하고 죄짓고 회개하길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평생 지적장애인으로 산 언니는 불평 한번 없었고, 교회 가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쳐놓곤 했었다. 지난주일 이월드 목사님이 성경공부 많이 하고, 학사모 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능이 낮아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적장애인이 천국 간다고 하셨다.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린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존재감 없이 살았던 언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추성숙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영생에 이르는 길 ::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세계 어느 곳이나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오고, 그 발전한 문명의 혜택을 자녀 세대들이 살면서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은 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어른들이 ‘아끼고 절약해야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고도성장기에 태어난 60, 70년대 세대들은 이 말에 100%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6, 70년대 세대들이 신문을 스크랩하며 신문 사설을 8, 90년대 세대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좋은 논설문이나 좋은 시각자료들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8, 90년대 세대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80년대에 태어난 저는 모르

는 것을 검색할 때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같이 영상을 통해 모르는 것을 찾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책으로 읽어보는 것과 영상으로 익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서로 다른 세대는 언제나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도구와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 조심해라.”,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등등의 보편적인 당부도 좋지만, 세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진리, 곧 하나

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기성세대가 차세대에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들과 청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늘 힘이 넘치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세대가 거듭하고 변화해가도 변치 않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차이를 더 부드럽게 융화시키는 것은 어른들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배움보다도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진리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화

이미 주신 응답

올해 초 이시대 목사님께서 3가지 올해의 목표를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바로 이 세 가지였다. 그중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적어놓은 것은 새 핸드폰이었다. 이미 기존 핸드폰을 6년째 쓰고 있던 터라 멈춰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보상으로 선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또 그래도 기도 제목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도중 내가 하고 있던 일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간단한 제안이 들어와 100만 원가량이 갑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내주셔서 구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도움을 거절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

갖고 싶은 것을 놓고 기도했고, 그걸이라고 100만 원을 이미 보내주셨는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만 기다리고 있던 나였다. 깨닫고 나서 즉시 그 돈으로 핸드폰을 사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를 돕기 위해 만나러 간 곳 근처에서 그날이 마지막인 핸드폰 할인 행사를 우연히 발견했고,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새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다.

저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둔하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주신 응답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장명훈 집사

